

곡성군, 수해 피해 용자 지원 40건 몰려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상담 및 접수 특례보증 통해 낮은 금리로 경영안정자금 지원

곡성군이 수해 피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 융자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한 결과 40여 건의 자금 신청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곡성군에서는 소상공인 73개소, 중소기업 11개소가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곡성군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1일과 24일 양일간 곡성레저문화센터와 군민회관에서 재해자금 지원 상담 및 접수를 진행했다.

또한 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

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신용보증재단도 공동으로 참여해 지원절차 안내, 상담, 신청 접수를 함께 했다.

곡성군은 지난 1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시설자금은 소요금액 이내에서 0.1%의 보증수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 하에 1.9%라는 낮은 대출금리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0.1%의



보증 수수료를 부담하면 2억 원 이내에서 운전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으로는 3년 거치 4년 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7천만원까지 1.5% 대출금리로 용자 지원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수해가

지 겹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두 힘든 상황이다. 피해를 복구를 위한 자금을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삶의 터전 잃은 이재민 생각에 그정도 더위는 참을만 했어요”

“더웠죠. 땀도 많이 나고 더웠는데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생각하면 그 정도 더위는 참을만 했어요”

수마가 할퀴고 간 나주지역에 발 벗고 나섰던 군부대 장병들의 헌신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주택 침수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나주시 다시면 마을은 10여 일 간 이어졌던 장병들의 도움으로 평화롭던 마을의 모습을 점차 되찾는 중이다.

24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다시면 수해 복구 현장에는 육군 제31사단(사단장 소영민) 향토사단 군부대(96연대)와 해군 등 장병 1100여명이 투입됐다.

농작물을 치우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마스크까지 착용한 터라 작업의 강도는 배가 됐지만 휴식 시간 마을 우산각에 둘러앉아 도시락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은 막막하기만 했던 복구 현장에 희망과 감동을 전했다.

죽지마를 한 주민은 “자식 같은 군인들이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거운 짐을 옮기는 걸 보니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다”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주위의 손길 덕분에 수해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집중호우로 나주지역은 총 127동의 주택이 물에 잠겼다.

나주시, 육군 제31사단 96연대·해군 3함대사 수해 복구
지난 10일부터 열흘 간 국군 장병 1100여명 참여 구슬땀

이 기간 나주에 주둔하는 96연대 4대대(대대장 노형근) 장병 450명을 비롯해 동 연대 △본부대대 240명 △1대대 80명 △2대대 100명 △3대대 80명 △해군 3함대사 160명의 장병들은 피약별 아래 침수 주택 복구에 연일 구슬땀을 흘렸다.

군 장병들의 활약은 민간 자원봉사 인력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더욱 빛이 났다.

지붕이 무너져 내린 창고 속에서 농기계를 꺼내고 주택 지붕에 올라가 있는 냉장고를 치우는가 하면 담장 쓰러질 것 같은 시멘트 담장 철거 작업을 자처하는 등 위험천만한 복구 현장 속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했다.

군 장병들은 피약별 아래 드넓은 농경지에 나뭇구는 각종 쓰레기 더미와 힘없이 주저앉은

이 중 다시면은 영산강 지류 하천 제방 붕괴로 강물이 범람하면서 5개 마을, 주택 78채가 침수되면서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했다.

군부대 장병들을 비롯한 민·관 자원봉사자의 도움의 손길로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 127동 가운데 현재까지 106동의 주택 복구가 완료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수해 복구 최일선에 선 군부대 장병들의 헌신 덕분에 코로나19 재확산 이전 복구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었다”며 “재난 위기뿐만 아니라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대인 지뢰 제거 작업 등 시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주는 제31사단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부모-자녀통합프로그램 ‘가족애(愛) 여름밤’ 성료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0가정 참여 부모 교육·자동차극장 영화 감상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최근 사춘기 자녀와 부모 간의

정적 상호 소통을 위한 부모-자녀 통합프로그램 ‘가족애(愛) 여름

밤’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사춘기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부모교육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코로나19로 지친 심리적·정서적 치유를 위한 자동차극장 영화 관람으로 구성했으며, 관내 청소년과 부모, 지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부모교육에서는 자녀와 소통할 때 어려웠던 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교정 방법을 통해 가족 간의 올바른 관계 맺기를 배웠으며, 자동차극장 참여를 통해 가족 단위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날 교육과 영화 감상은 모두 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며 이뤄졌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녀와 함께 영화 보는 것이 어려웠는데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라며 큰 호응을 표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하여 맞춤형 상담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화순군, 전통시장 코로나19 방역소독 강화

상인·방문객 마스크 1천 매 배부...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화순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화순고인돌 전통시장을 찾은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생활화’ 집중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23일 화순읍 전통시장 상인·방문객이 안심하고 전통시장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일원에서

군청 직원 50여 명이 마스크 상시 착용, 예방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코로나19 차단 위한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상인과 방문객 등에게 마스크 1000매를 배부했다.

화순군과 시장상인회는 상인과 방문객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매일 출입구, 이

동 통로, 공중화장실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장날 당일에는 하루 3번 소독하는 등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박두진 상인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과 상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방역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과 함께 주기적인 방역을 실시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화순엔 특별한 맛이 있다

화순군은 25일 화순 관광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순 맛집’ 3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선정된 ‘화순 맛집’은 일반음식점 24곳과 카페 8곳이다.

화순군은 지난 5월부터 맛집 추천과 신청을 받기 시작해 적격 여부 심사, 군민과 관광객이 참여한 온라인 평가를 했다. 위생, 서비스, 편의시설, 관광지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한 현장 평가까지 3단계 심사를 통해 최종 맛집 32곳을 선정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